데스크시각

정후식

대선 투표소 가는 길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한다. 벌써부터 동장군의 위세가 매섭다. 폭설에, 한파에 엄동설한(嚴冬雪寒)이 실감날 정도다. 추위 타령이 절로 나오는 것은 비단 날씨 탓만은 아니다.

경기침체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저성장에 실업난, 고물가, 전세난, 가계부채로 서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예감하고 있다. 빚에 쪼들리고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교육의 붕괴, 양극화로 온 사회가 신음하고 있다. 실타래처럼 엉킨 현실을 단칼에 풀어줄 지도자는 정녕 없는 것일까.

'49대 51' 초박빙 승부

숨 가쁘게 달려온 18대 대선 레이스가 종료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치면 22일,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이 개시된 시점부터 보면 5개월, 대권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된 때부터 센다면 1년여 만이다. 최악의 정치 불신 속에서도 국민은 정치판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일등공신은 극적으로 등장한 안철수 전 후보였다. 기존 정당정치의 폐해를 파고들며, 그가 내세운 새 정치는 선거판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었다. 대선 출마와 사퇴, 정권 교체를 위한 문재인 후보 지원까지 그의 정치 참여는 철옹성 같았던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렸다.

그러는 사이 초기 5%안팎에 불과했던 문 후보 지지율은 박 후보와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초박빙구도까지 치고 올라갔다. '49대 51'의 승부가 가능해진 까닭이다.

이번 대선기간에는 또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극심했다. 노정객들의 지지 선언이 영남과 호남의 지역구도는 물론 보수·진보간 이념구도까지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면서 후보 진영간 정체성마저 모호해져 버렸다.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거물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보수·진보의 결집력이 전에 없이 커진 것도 특징이다.

양대 후보는 공약과 정책에서도 선명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해 표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정책의 스펙트럼이 유사하고 방법론에서만 다소 차이가 날 정도다.

하지만 후보들의 삶과 정치 궤적을 함께 들여다보면 지향점과 철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대통령'을 외치고, 정치쇄신과 국민대통합을 부르대지만 입에 발린 말인지, 진정성이 실린 것인지는 자세히 살펴보면 티가 난다.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불황 속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당장 경제가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그걸 기대하는 유권자도 별로 없다. 대선은 '메시아'를 불러내는 의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결과 증오의 정치'로 국민을 절망케 하지 않고, 투명한 국정 운영과 소통 노력으로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면 족하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생각과 의지다.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그것이 정치의 실질적인 내용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놈이 그놈, 누가 되더라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 부동층이나 상대편 지지자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간계는 일정 부분 먹혀든 듯하다. 이번에도 여당의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전략은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선자는 유권자의 높은 지지 덕분이 아니라 기권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깨어있는 시민이 '메시아'

흔히 선거는 최선(最善)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거나 정치인은 다 똑같다는 생각에 휘둘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 세력에게 소중한 주권을 그냥 넘겨주는 행위다. 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 여섯 번째 대통령 선거, 우리가 오늘 행사할 투표권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건 선배들의 혼이 담겨있다.

정치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임은 분명하다.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온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대한민국호(號)의 새로운 선장을 만나게 된다. 메시아를 기다릴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로 새 정치의 희망을 일구어가야 마땅하다.

〈정치부장〉who@kwangju.co.kr

사설

투표 참여가 국가의 명운 좌우한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제18대 대통령이 탄생되는 엄숙한 순간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5천만 국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실, 차기 대통령이 헤쳐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을 살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해법도 찾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로켓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의 강화와 아울러 악화된 한중, 한일관계 개선 등도 시급한 사안이다. 또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화합 등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권자들은 이런 과제들을 누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동시에, 어느 후보의 정책이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선거 막판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전이 가열된 데 대해서도 이번 대선의 화두였던 '깨끗한 정치'을 위해 투표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호남민들도 자신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에 당한 소외와 홀대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지난 두차례 대통령을 만들었던 저력을 과시하는 길 뿐이다.

이번 대선은 국운을 상승시키고, 지역 화합의 공동선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든 주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치의 변화가 내 손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꼭 기본권리를 행사하자.

정부, 우주항공클러스터 고흥에 집중하라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고흥이 우주항공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로켓만 쏘는 발사장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경남 사천 유치를 공약하고 나서면서 여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각 우주항공클러스터의 사천 유치를 공약하면서 지자체간 '우주 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16년까지 1조 원의 우주항공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올 국비 지원은 4억 원 뿐이며, 내년에도 10억~9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천은 관련 업체를 잇달아 유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천의 관련 산업체는 현재 국내 항공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부산에 23만㎡ 규모로 항공우주사업의 거점이 될 제2테크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나로호 1·2·3차 발사 과정에 참여한 대한항공이 부산에 관련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전남도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조차 우주항공클러스터의 사천 유치를 거들고 나서 나로우주센터가 자칫 빈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클러스터의 분산이나 별도의 시설 설치는 효율성 저하와 국력 낭비만 가져올 뿐이다.

우주항공산업은 발사장을 비롯 우주체험센터, 연관 산업단지, 관련 학교 등 모든 기관이 집적될 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 고흥을 비롯한 전남 일대에 우주항공클러스터가 집적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도 이를 위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성냥팔이 소녀의 아빠

류동훈

지난주 일요일 롯데마트 수완점에 있는 어린이 소극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냥팔이 소녀 뮤지컬을 보았다. 아이들에게 따로 사교육은 시키지 않지만 틈나는 대로 어린이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 소극장을 찾고 있다. 옷 수선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빠와 할머니가 있는 소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응급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아빠는 먼저 간 할머니와 엄마를 그리워하며 일은 하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 땔감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진 소녀는 견디다 못해 성냥을 팔러 나간다. 성냥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노력하지만 온갖 멸시를 당한다. 담벼락에 앉아 성냥을 하나씩 하나씩 켤 때 따뜻한 난로, 맛있는 케이크, 사랑하는 엄마, 할머니 등 소녀가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들이 보이다가 사라지고는 소녀는 하늘나라로 가고, 마침내 싸늘한 주검으로 남는다.

필자의 시선을 잡은 소녀의 대사 중 이런 것이 있었다. "성냥사세요. 성냥사세요" 외치는 소녀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소녀 아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애를 추운데 성냥팔이를 시키는 거야" 손가락질을 했다. 그때 소녀는 '아 내가 성냥팔이를 하니까 아빠에게 욕을 먹이는구나. 아빠에게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오히려 아빠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런 딸의 속도 모르는 아빠는 술만 찾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딸에게 달려왔지만, 이미 딸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남자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일상이라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 남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빚도 물려주어서는 안 되고, 상처도 주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로 부모가 평가받는다. 최근 드라마 '내 딸 서영이'를 보면 무능한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딸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시댁에 속이고 결혼을 하고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 딸들에게 좋은 아빠로 남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몇 가지 정리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해 본다.

우선 첫째,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이루고, 절대 자식들에게 빚은 물려주지 말자. 둘째, 보험도 충분히 들어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셋째,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아 딸이 결혼할 때 아빠 없이 식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넷째,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다정한 말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다섯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간다. 여섯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경험하게 한다. 일곱째, 집안 살림살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사를 분담해 애들에게 남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여덟째, 좋아하는 캔커피 값을 절약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사준다.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간다면 적어도 나는 성냥팔이 소녀의 아빠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전력수급 위기 극복, 나부터 절전 실천을

이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서 몰래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불을 제1의 불이라고 하고,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전기를 제2의 불이라고 한다. 오늘날 전기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화가 되었다.

최근 겨울철 들어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사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9·15 대정전의 악몽이 되풀이돼 혹한의 추위 속에서 전기 없이 생활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사정이 좋지 않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

먼저, 전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력공급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사실은 반대한다.

또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에서 절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일 방송과 신문을 통해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 상황이 실시간 전파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소중한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 '나 하나 절전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원인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이므로 전국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두번째 원인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다.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 사항을 실천하면 된다.

우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사용을 자제한다. 겨울철에는 하루 중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에는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온도는 겨울철 건강온도 18~20도를 유지한다. 적정 난방온도를 23도에서 20도로 낮추면 약 20%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또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도가량 상승한다고 한다.

특히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겨울철 최대 수요전력 중 전기난방기기 사용 비율은 22~23%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전기난방기구 사용은 전국적인 정전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사용시간 외에는 뽑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전 국민의 자발적인 절전 실천만이 현재 당면한 전력수급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혜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부터 절전을 생활화하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차장〉

無等鼓

메두사호

사람이 사람을 먹는 '식인(食人)'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바로 '살아남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다. 지난 1816년 여름 아프리카 연안에 좌초한 프랑스 군함 '메두사 호'에서 벌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아프리카의 식민지 세네갈로 향하던 메두사 호에서 빚어진 처참한 식인의 현장은 3년 후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에 의해 '메두사 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으로 재구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당시 메두사 호가 침몰하자 선장과 고위 공무원, 장교 등은 구명보트를 타고 유유히 대피했지만, 남은 149명의 선원과 승객들은 급조한 뗏목을 타고 물과 식량도 없이 무더위와 싸워야 했다. 13일간의 표류 끝에 구조될 당시 생존자는 15명에 불과했으며, 뗏목에는 여기저기 핏자국과 함께 말린 인육 조각이 널려있었다고 한다.

고립무원의 환경에서 식인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엔 시베리아에서 조난당한 어부 2명이 동료를 살해, 인육을 먹고 살아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께 시베리아 수탐강에서 고기를 잡다가 조난당한 4명의 어부 중 2명이 이달 초 극적으로 구조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구조 장소 인근에서 잘라진 뼈와 두개골 조각, 피투성이 얼음덩어리 등이 발견됐다. 러시아 경찰은 '2명의 어부가 동료 1명의 시신을 먹은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발표했다. 구조된 어부 2명은 동상치료를 받은 뒤 도주했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식인은 '절대 금지'된 행위다.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생사가 걸린 상황이라면 종종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살아남기 위해 인육을 먹었지만, 귀환한 인간 세상의 처벌이 두려워 도망간 어부들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청소년 범죄 악용되는 SNS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시급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가 청소년 범죄의 소통창구로 전락하고 있지만 실정법상 이를 제재할 수 없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활용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차원에서 가정 내에서의 수시 점검은 물론 교육당국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팅이 가능한 SNS앱들은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 SNS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피해를 많이 당한다.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별다른 필터링이 없이 이용되고 있지만 제재 방안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범행에 이용된 SNS 앱과 일부채팅 앱들은 별다른 성인인증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지적이 없는 한 각종 욕설과 성매매 암시 문구가 사용될 수 있다. 앱 개발자 운영 업체 등이 모든 채팅 내용에 대한 필터링 및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에 중독돼 범죄 피해 발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도 스마트폰 SNS를 통해 이뤄지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서울에서 강모(16)양이 SNS에서 친구 16명으로부터 집단 언어폭을 당해 자살한 사건은 SNS가 단순 소통창구에서 변질돼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SNS에서 각종범죄에 노출돼 피해를 입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및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대한 성인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채팅 등 SNS에서의 욕설 및 성 관련 단어의 대화 필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올바른 사용법 교육도 강력 시행돼야 한다.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